

01 교회소식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다

성구 암송을 통해 영혼이 잘되고 축복받았다는 제15회 말씀퀴즈대회 출전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

02 생명의 말씀

변함없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실해 변함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도 응답과 축복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다.

03 기획특집

참된 구제를 하려면?

구제의 공화로 선을 쌓으며 축복받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에 관해 알아본다.

04 간증

“나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 전도 대장이 된 케냐 단 오곳 성도와 대상 포진을 치료받은 이예정 자매 간증.

만민뉴스

제704호 2015년 9월 20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성경 암송, 영혼이 잘되는 축복의 지름길!



시편 1:1~3

“복 있는 사람은 ... 오직 여호와와 더불어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이맘때면 성도들의 관심 속에 남선교회총연합회 주최로 '말씀퀴즈대회'를 개최한다. 전 성도를 대상으로 본교회는 물론, 전국 지교회에서도 참석해 1, 2차 예선을 거쳐 본선에서 경합을 벌인다. 이를 통해 성도들이 말씀의 기반 위에 체계적인 믿음 성장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아래 사진은 2012년에 치러진 '왕중왕전', 피켓을 들고 출전자들을 응원하는 성도들, 2014년 제14회 말씀퀴즈대회 시상식).

제15회 말씀퀴즈대회 본선이 9월 20일 주일 저녁예배 후 본당에서 열린다. 평소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마음을 닦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며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성결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영적인 말씀무장과 함께 매일 성경 한 장 이상을 읽고 성구 한 절을 암송할 것을 당부해 왔다. 이에 남선교회총연합회에서는 성도들의 말씀무장을 돕기 위해 매년 말씀퀴즈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본선에는 우리 교회를 비롯해 대전, 마산, 구미, 창원, 춘천, 서부산, 서산, 여수, 진주문 지교회에서 출전한다. 지난 8월 4,500여 명이 1차 예선을 치렀고, 2차 예선을 거쳐 총 57명이 본선에 진출해 경합을 벌이게 된다.

올해 출전자 중 작년에 금상을 수상한 예능위원회 솔리스트 이선우 집사는 기쁨과 폐질환을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으로 치료받아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있다.

이 집사는 개그우먼 출신 방송인으로 암송에는 자신이 있었다. "처음에는 대본 암송이 능력이 돼 있으니 대상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다섯 번의 대회 출전을 통해 이 집사가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교만함과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발견해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고 간증했다.

이렇듯 본선 진출자들은 말씀퀴즈대회를 통해 영혼이 잘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 2012년, 역대 수상자들이 경합을 벌인 '왕중왕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황금란 전 도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무엇보다 영혼을 갈무리할 때 암송한 말씀이 큰 도움이 됩니다."라고 했다.

매년 말씀퀴즈대회 본선 시험문제는 매주 후보 맨 뒤에 수록된 '오늘의 말씀' 1년 치 365구절에서 출제된다. 성구의 토시 하나까지 정확하게 암송하는 것은 물론 응용문제가 있어 말씀의 영적인 의미까지 알아야 풀 수 있다.

최고령 출전자 72세 서근종 장로는 "처음 몇 년은 아무리 외우려 해도 외워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 외워지더라고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순종할 수 있어서 그 자체가 너무 뿌듯합니다."라고 했다.

또한 올해 첫 출전한 한현옥 집사 역시 순종의 축복을 간증했다. "지난 1년간 대회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통해 제

마음속을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마음도 신속히 변화돼 믿음의 분량이 성장했고, 일터에서도 물질의 축복이 넘칩니다."라며 감사해했다.

마산만민성결교회 임효정 집사는 초등학교 교사인데 수업을 마치고 퇴근하기 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말씀 암송을 한다. 임 집사는 "말씀 암송을 하면서 설교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고 천국 소망이 뜨거워졌으며, 남편이 당회장님의 기도으로 천식을 치료받는 등 많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1회부터 15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변함없이 출전하는 고경석 집사(제2회 대회 대상 수상)에게 매년 참가하는 이유를 물었다.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매번 느끼기 때문입니다. 암송한 성구가 많아지는 만큼 말씀의 짝이 이뤄지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니 말씀을 대할 때 매우 행복합니다."

역대 출전자들은 물론이고 해마다 수상자를 배출해 귀감이 되고 있는 대전만민교회, 단체상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 교회 기도제물연합회 등 올해 대회에도 출전자들의 열띤 경합이 예상된다. 과연 이번 대회 대상의 영예는 누구에게 돌아갈지 그 추이가 주목된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13)

변함없는 마음

주시는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이런 사랑을 체험했기에 하나님은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며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감사의 조건을 찾아 예물을 심고 어찌하면 더 많이 드릴까 고심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께서 맡기신 양 떼 역시 생명을 다해 돌아보며 섬겼습니다. 아내도, 세 딸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렸고 내 가족보다 양 떼를 더 귀하게 여겼지요.

때때로 교회적인 큰 연단을 겪을 때는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양 떼와 교회를 지켜왔으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루라고 명하시면 죽음과 같은 위협에도 오직 “예”와 “아멘”으로 순종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후 30년이 넘도록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힘들다거나 벅차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뜨겁게 연애할 때, 상대를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아무리 힘든 일도 기꺼이 하듯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한다면 모든 소유와 생명을 드린다 해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 생명을 다한 사랑이 잠시도 식어진 적이 없었고 그대로 머물러 있던 적도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 주님께 대한 사랑이 뜨거워졌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정녕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셨는지요? 아니면 한때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열정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어느 순간 세상과 타협해 미지근한 신앙에 머무르거나, 성공이나 가족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보다 먼저이지는 않았는지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도 넘치는 사랑을 주십니다. “나도 너를 너무 사랑한다!” 하시며 반드시 사랑의 증표를 보여 주시지요. 건강이나 물질, 어떤 마음의 소원도 품는 대로 응답하시며 큰 권능까지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2.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갚아 주십니다. 사랑의 증거들을 체험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날로 믿음이 더해져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연단을 받으면 그 마음이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고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한탄하기도 하며 심한 경우에는 시험에 들어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지요. 정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잡혀서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감옥에 갇혀 매 맞은 고통은 심해지고 언제 다시 매를 맞을지,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막막한 상황이지요. 이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저는 오직 주를 위해 헌신하며 충성했는데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이렇게 서운해 하거나 탄식하지는 않으실까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고통과 슬픔을 호소하거나 탄식하지 않고 중심으로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행 16:25~26).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항상 기도에 응답하시며 함께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지요. 매를 맞고 착고에 채여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심지어 생명을 드리라 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 또한 성도로 있을 때나 주의 종이 되어서나 쉬운 길만을 걸어 온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모든 삶을 바쳐서 이뤄 놓은 열매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처럼 위태로운 상황도 있었고, 차라리 주님 품에 안기고 싶을 정도

로 불같은 연단의 시간들도 있었지요.

그러나 죽음과 같은 고난이 다가온다 해도 원망이나 불평의 말을 낸 적이 없고 그런 마음조차 품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어떤 원망이나 불평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위로해 드리며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탄식이나 원망을 하겠습니까? 저는 어떠한 시련도 그 길이 축복의 길이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이뤄지는 길임을 믿으므로 오직 감사의 기도만 올렸지요. 또한 제가 연단으로 인해 힘들어 하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까봐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나이다. 저를 통해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시며 영광을 받으소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 드리고자 했습니다.

여러분은 연단을 만나면 어떤 모습입니까? 감사의 찬송을 드리던 입술이 의심하는 말이나 원망, 탄식을 쏟아내고, 마음이 끈고 하다 해서 사명을 놓아버리진 않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좋을 때는 웃다가 원하는 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는 때를 쓰고 불평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므로 어떤 고난 앞에서도 사랑과 신뢰가 변함이 없는 성숙한 아버지의 신앙을 원하시지요.

이런 신뢰 관계가 이뤄질 때야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벗과 같이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진실해 변함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진실한 사랑을 주십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며 반드시 축복과 영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함없는 마음을 이뤄 응답과 축복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첫째 되는 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인들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했기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생명이 아끼지 않았습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말씀한 대로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죄인 된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횡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4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녀오실아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253-985877 (예금주 이경진)

우리의 삶을 윤택케 하는 '구제'



삶의 지혜가 기록된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말씀하십니다. ‘구제’는 하나님 명령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이다(신 15:10). 그렇다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구제는 어떤 것일까? 구제의 공화로 선을 쌓으며 축복받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구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했다.

아무리 자신의 물질과 시간 등 모든 것으로 구제했다 해도 정작 중요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형식에 불과할 뿐이며, 행한 일에 대한 축복과 상급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말씀하셨다(마 6:3-4).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남에게 보여 칭찬받으려고 구제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의 마음을 철저히 지키며, 오직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사랑으로 이웃의 유익을 위해 구제해야 한다.

이웃을 사랑해 구제하는 사람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하지 않는다. 자신이 구제함으로써 이웃의 형편이 나아진다면 그 자체가 기쁘다. 선행이 드러나 칭찬을 받게 되면 오히려 민망히 여긴다. 주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

기에 어찌하든 자신도 베풀기 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랑과 선행을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생각하니 기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축복과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을 믿으니 행복하다(잠 15:3).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란 무엇일까?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참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경건해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주관하셔서 고넬료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방인으로는 최초로 성령을 받도록 하셨으며, 자신은 물론 그의 가족과 친구들까지 구원을 받는 축복을 주셨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다비다도 베드로의 기도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이처럼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향이 오직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구제에 힘쓸 때 영육 간에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된다.

◆ 성령의 주관을 좇아 하는 영적인 구제

우리 마음에 선과 사랑이 임하면 그만큼 진실하고 참된 사랑으로 구제할 뿐 아니라 성령의 음성도 밝히 들어 온전한 구제를 할 수 있다. 성령의 주관과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온전한 구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 안에서의 구제는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어서 영혼을 살리는 구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구제할 때에 해야 할 구제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구제가 있다.



교회의 첫째 사명은 복음을 전파해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적인 평안을 얻게 하는 것이다. 구제의 궁극적인 목적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구제할 때는 성령의 주관을 받아 적절한 상대에게 알맞은 구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구제를 하면 구제받은 사람이 오히려 주님을 멀리하고 자칫 사망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은 안중에도 없고 구제받기 위해 교회의 선한 의도를 악용하려는 경우에는 구제받은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서운케 할 수 있기에 무조건 구제해서는 안 된다. 믿음이나 선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구제를 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해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해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하나님께 구해 응답받아가는 신앙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해서 무조건 구제 대상에서 제외해 버리면 안 된다. 세상 사람에게도 구제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며,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의 경우 믿음이 자랄 때까지 구제로 힘이 되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 있는 성도들 중에도 태어날 때부터 연약함이나 질병이 있거나, 갑작스런 사고를 당해서 당장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 등의 경우도 구제가 절실히 필요하다.

구제는 영적인 사랑이 임한 만큼, 또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만큼 임하는 선의 지혜를 받아야 잘 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찌하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제하기를 힘쓰되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에 대한 정에 이끌려 맹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주관을 받아 영적인 구제를 하려는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한 대로 참된 구제는 곧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으니 성령의 밝은 인도를 받아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구제를 함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해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큰 축복과 상급을 받기 바란다.

<p>주요 프로그램 안내</p> <p>SEPTEMBER 2015</p> <p>09.20~09.26</p>	<p>이재욱 목사의 생명의 말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나님의 마음 보배 중에 보배는 믿음 ■ 에녹 3 창세기 강해 11-15 ■ 천국 14-18 십자가의 도 21-24 ■ 헛되고 헛되니 1-3 우리 삶의 등불 50 요한계시록 강해 45-51 1차 영혼육 2-6 	<p>GCN TV설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수진 목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희선 목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2 (신동초 목사) 열재앙 28 (정구영 목사) 경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1 (김수정 목사) 영의 마음 이루어면 (천우진 전도사) 우리가 받은 은혜 (임환택 전도사) 	<p>예능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43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4-5 창조와 과학 14-15 ■ 내 마음의 찬양 18 옛날 옛적에 10-11 ■ English 4-5 즐거운 요리 26 ■ 모두 드려요 35 	<p>해외성회 및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연합대성회 4 만민하게수련회 (체육대회 1-2부) 믿음으로 걸어온 길 8 화상 (시즌2) 3 <p>GCN HD 채널 kt olleh tv 882번</p>
---	--	--	--	--

2013년 5월, 저는 정명호 목사님이 인도하신 '우모자 성회' 참석을 계기로 가족과 함께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작년까지만 해도 설교에 은혜만 받을 뿐 간음과 헬기 등으로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지요.

2015년 1월 1일, 정명호 담임목사님은 제게 온전한 주일성수와 십일조에 대한 중요성을 깨우쳐 주셨고, 이후 제 신앙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이웃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니 전도에 힘써 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전도해 본 적이 없었지만 순종하고 싶었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주일성수와 십일조는 물론, 열심히 기도하며 성경공부를 했습니다. 정 목사님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어떻게 전도할지도 알려 주셨지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약국에 오는 손님들에게 차와 다과를 준비해 드리고, 때를 쫓아 이웃을 초청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친분을 쌓았지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응답받고 축복받



▲ 단 오크 성도(사진 가운데)와 그가 전도한 영혼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행복하다.

“50명을 전도해 축복받고 있습니다”

단 오크 성도 (34세,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그룹을 만들어 가난한 가정을 방문해 도와주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내 또한 많은 이웃을 초대해 그들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 주일 전도한 영혼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여성도의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로 이혼 직전에 있었지만 정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뒤 집에 돌아왔을 뿐 아니라 변화돼 술도 끊고 교회에 다니며 지금은 아내와 함께 전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성도는 남편의 직업이 없었지만

타나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을 직접 보며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졌고, 천국 소망으로 뜨거워졌습니다.

요즘 저는 한국에서 받은 은혜와 감동을 케냐 사람들에게 생생히 전해 주며 더욱 행복하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주신 지역장, 남선교회 임원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사랑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를 변화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권능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과 말씀과 기도로 인도해 주시는 정명호 담임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대상포진을 치료받았어요”

지난 7월 27일, 두통이 시작되더니 오른쪽 귀 뒤와 목이 부어올랐습니다. 3일 후에는 이마에 붉은 반점이 생기며 따갑기 시작했고 눈에도 통증이 왔지요. 병원 검진 결과, 대상포진이었습니다. 수포가 많이 생기고 통증이 심해져 마치 뾰족한 것으로 찌르는 듯한 따가움이 지속됐고 급기야 눈을 뜰 수조차 없었지요.

8월 1일부터는 헛구역질이 나오 물만 마셔도 토해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더니 의사선생님은 대상포진이 눈까지 번지면 실명할 수 있고 낫는다 해도 언제 재발할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약도 먹을 수 없어 링거만 맞고 돌아왔는데 얼마나 얼굴이 흉하고 극심한 통증이 밀려오는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대학 공부가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쉬면서 결국 주일 성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자신이 없다는 생각에 회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 그러나 부모님은 저를 위해 애통의 간구를 하셨습니다. 또한 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중보 기도해 주시는 주님, 그리고 저와 같은 양 떼들을 위해서도 생명 다해 기도하시는 당회장님이 계시기에 저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요.



8월 2일 밤, 저는 '2015 만민 하계수련회'를 앞두고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했고 몸을 가누기도 힘들었지만 다음 날 수련회 참석을 위해 집을 나섰지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통증이 사라졌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드디어 3일 수련회 첫날 교육 은사집회 시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는 순간 성령의 불이 임해 이마와 눈 주변, 귀 뒷부분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이후 물집이 마르고 굳어 딱지가 앉더니 신속히 치료됐지요. 할렐루야!

수련회를 다녀온 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마음 깊이 느끼며 중심에서 통회자복을 했습니다. 그 뒤 기도는 물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지요.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시던 아버지, 그분이 저를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깨우쳤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예정 자매 (24세, 2청년선교회)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3356-4717, 010-4575-193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백성 B/D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72-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천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조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원로 234번길 25-4 ☎042841-0091,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층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북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월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3343-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중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남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평곡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8927-2073
- 관동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7133-9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연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7133-9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